공교육 혁신… 지역인재 유출 막는다

전북자치도교육청 · 전북자치도 등,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사업 추진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가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유출을 막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전북도, 전주·군산 등 6개 시·군과 10개 대학, 그리고 18개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은 지난 1차 공모에서 5개 시·군(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데 이어 2차 공모에는 6개 시·군(전주·군산·정읍·김제·임실·순창)이 공동 신청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는 문화자본(K-컬처)에 기반한 IB교육 강화와 문화산업 진흥을, 군산시는 새만금 특화단지 중심의 과학자본을 활용한 융합교육과 신산업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정읍시는 역사문화자본과 연계한 인성교육 강화 및 농생명·바이오산업 인프라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김제 종자생명·특장차 산업 중심 정주형 인재 육성 △임실 치즈산업·반려동물 산업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교육 △순창 발효산업·건강장수특구 기반 건강한 농촌유학 활성화로 학령인구 유입 등 각 시·군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을 준비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30일까지 2차 시범지역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 말 최종 선정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방 주도의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27일 본교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우수 인프라 상호 공유

공공인적자원개발 동향 공유 통한 맞춤형 인재 육성 교육프로그램 공동 연구 개발 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7일 본교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임상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임상규 원장, 권덕철 JBNU 지역발전연구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교환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간 우수 인프라를 공유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인적자원개발(HRD) 동향 공유를 통해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에 함께 나서고, 리더십과 행정혁신, 직무역량 등 분야별 강사 지원도 약속했다.

또한 교육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을 공동을 활용하고,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외국 공무원 위탁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이 대학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간 교육 협력의 출발점이자 지역 핵심 인재 양성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우수 강사 선정, 교육 공간 등 대학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상규 원장은 "글로컬대학으로 나가고 있는 전북대학교와 공공인재 양성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양 교육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공무원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관으로 새출발

내달 1일자로 명칭 변경… 설문조사 결과 과반 63%가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이 학생교육문화관으로 새출발한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문화회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학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7월 1일자로 이같이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문화회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 군산교육문화회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 익산교육문화회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남원교육문화회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 김제교육문화회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 부안교육문화회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학생교육문화관은 앞으로 지역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추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수상안전교육, 예술문화교육·사회적배려 학생 맞춤형교육 등을 진행한다. 동시에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명칭 변경을 위해 전주교육문화회관이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을 대표해 학생의회 의장, 도의회 교육위원, 학부모 등으로 교육문화회관 역할·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 교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3%가 학생교육문화관을 선택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문화회관이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학생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교육문화회관이 새롭게 바뀐 명칭에 걸맞게 지역의 학생교육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내일 대입전형 전문가 집중 연수

경희대 등 서울지역 8개 대학 입학사정관이 강사로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9일 전주 왕의지밀 세미나실에서 진학교사 80명을 대상으로 '대입전형 전문가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진학교사 중 1명씩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서울지역 8개 대학 입학사정관이 강사로 참여한다.

이는 기존의 대학별 전형 계획을 안내하는 일방적인 연수가 아닌 대학별로 모둠을 구성해 해당 대학의 대입전형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이에 교사들은 한 대학의 입학전형 분석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4개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만날 수 있다.

특히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교사가 모둠마다 컨설턴트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 학생 선호대학 입학사정관과 교사들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 인하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수도권 대학들이 적어도 1번씩은 전북을 찾아 교사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제2회 교육공무직원 평균경쟁률 6.6대 1

5개 직종에 1619명 지원
교무실무사 경쟁률 높아

2024년도 제2회 교육공무직원 채용 평균경쟁률이 6.6대 1을 기록했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원서접수 결과, 5개 직종 245명 모집에 총 1,619명이 지원했다.

교무실무사 직종이 4명 모집에 686명이 접수해 가장 높은 172:1의 경쟁률을 보였고, 조리실무사 직종은 2:1로 나타났다.

1차 시험은 7월 20일 치러지며, 시험장소 등은 7월 10일 전북교육청 누리집(http://www.jbe.go.kr)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7월 30일 발표된다. /장은성 기자

이리공고, 이차전지 분야 마이스터고 추진 도민 설명회

이리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영)는 26일 본교 시청각실에서 이차전지분야 마이스터고 추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김정수·한정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윤영임 교육국장, 이리공업고 김용구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이리공고는 마이스터고 지정 후 (가칭)국제배터리마이스터고로 교명을 변경, 배터리융합과 96명을 모집해 총 18학급 288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배터리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졸업생 전원 취업을 위해 정석케미컬, 성일하이텍, 동원시스템즈 등 40여 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새만금개발청 등 8개 기관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및 한국EV기술인협회, 성일하이텍,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전북대학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총 20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청년 빅데이터 경진 8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단장 안정용)이 '2024년 제2회 전북 청년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기획, 지역 또는 기관의 현안 해결 방안 제시 등 2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8월 30일까지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고교 또는 전문대학-대학(원)재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면 10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또한 중·고교생의 경우 지도교사를 포함한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사업단에 따르면 작품을 접수한 뒤 서면평가, 멘토링, 발표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 우수 18팀(대학생 12팀, 중·고등학생 6팀)을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

특히 서면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참여기관의 전문가들이 직접 멘토링에 참여해 1개월 간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또 민관학 협업을 통해 학생 아이디어 구체화와 발표력 향상도 지원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통24(구 온국민소통)(https://sotong.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지역민 퍼블릭 프로그램에 온 힘'

도킹텍프로젝트협동조합, 입주작가 선정 완료
김종진 · 조영빈 · 최진영 · 이루비 · 신민찬 등

도킹텍프로젝트협동조합 2023년 퍼블릭 프로그램 '남원 청년 영화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4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킹텍프로젝트협동조합(이사장 김형준, 이하 도킹텍)이 5명의 입주작가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7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비거주형에 선정된 도킹텍은 2017년 설립돼 도내 영화제작, 배급, 상영 등 전북 유일의 영화제작 레지던시를 운영 중인 단체다.

특히 2022년 입주 작가들과 함께 제작한 독립영화 '식혀주다, 읽혀주다'와 2023년 제작한 '서리다', '가계'가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다.

또한 전주시 소재 본원에 더해 남원시 구도심 유휴 공간에 도킹 스페이스 남원점을 개소, 영화를 매개로 전주와 남원을 잇고 있다. 2023년에는 '제1회 남원 청년 영화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도킹텍은 김종진, 조영빈, 최진영, 이루비, 신민찬 등 5명의 입주작가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레지던시 운영에 돌입했다.

김형준 이사장은 "올해는 입주작가와 지역민, 그리고 지역 간의 교류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며 "특히 지역민을 위한 퍼블릭 프로그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레지던시를 지원해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전북형 레지던시 활성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거주형에 2개 단체, 비거주형에 2개 단체가 선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2024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참가자 접수

태권도진흥재단, 9월 4일 '태권도의 날' 기념… 내달 1일부터
기존 대학생 부문만 운영에서 올해는 대학원생 부문도 신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법정 기념일인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기념해 '2024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이하, 학술경진대회)를 개최하며 7월 1일부터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다.

학술경진대회는 태권도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태권도인들의 창의성을 선보이는 무대로 지난 2022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2022년에 8개 대학 12개 팀 26명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12개 대학 18개 팀 41명이 참가하는 등 성장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학술경진대회 취지인 태권도 학술연구 풍토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다.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참가 접수를 하며 특히, 전년도까지 태권도 또는 체육 관련 학과, 태권도 동아리 소속 '대학생' 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것을 '대학원생 부문'을 신설하며 대회를 확대하는 등학부생 또는 석사과정 재학생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대학생부 주제는 '태권도 문화산업 저변 확대 방안'과 '태권도 규제 또는 정책 개선 방안', '국립태권도박물관 세계화 방안' 중 1개를 택할 수 있고 대학원생부 주제는 '10주년을 맞이한 태권도원 관광 활성화 방안'을 단일주제로 진행한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서면심사를 거쳐 대학생 6팀과 대학원생 3팀 등 총 9개 팀이 본선에 진출, 8월 31일로 예정하고 있는 발표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선정된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학술 장려금과 함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상을 수여한다. 대학생부 최우수상 1명(팀)에게는 300만원, 우수상 2명(2팀)에게는 200만원씩, 장려상 3명(팀)에게는 100만원씩의 학술 장려금이 주어지며, 대학원생부 최우수상 1명(팀)에게도 300만원, 우수상 1명(팀)에게 200만원, 장려상 1명(팀)에게 100만원의 학술 장려금이 주어진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학술경진대회는 대학원생 부를 신설했고 보다 높은 창의성과 현실성이 담긴 연구 결과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기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미래를 짊어질 청년 태권도인들이 마음껏 고민하고 그 고민의 가치와 결과물을 태권도 진흥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립태권도박물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명불허전 명품공연' … 김제서 버라이어티 동춘 서커스 쇼

김제시(시장 정성주)문화예술회관은 명불허전 명품공연 추억의 '버라이어티 동춘 서커스 쇼'를 오는 7월 12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1925년 창단된 역사와 전통의 자존심을 건 동춘서커스의 명품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스릴과 감동을 선사하는 버라이어티 서커스 쇼다.

'버라이어티 동춘 서커스 쇼'는 곡예와 묘기 위주의 서커스에 예술성을 가미하고 현대 서커스로 기계체조와 무용 음악 등이 결합된 새로운 장르다.

수십개의 훌라후프를 돌리는 묘기와 농구공을 이용한 각종 묘기, 아슬아슬한 수직 줄타기, 발로 상돌리기, 한손으로 물구나무 서서 각종 묘기를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권 판매는 오는 7월 2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